

남원, 어린이 청소년 도서관 개관

1만5000여권 도서·500여개 장난감 구비

남원시는 25일 어린이와 청소년들의 꿈과 희망을 이룰 요람으로 만들고, 엄마와 아이가 함께 책을 읽고 놀이를 즐기며 소통의 열린 공간으로 제공하기 위해 어린이청소년도서관을 개관했다.

이날 개관식에는 이환주 남원시장을 비롯해 이용호 국회의원, 도·시

의원, 어린이 및 청소년, 시민 등 150여명이 참석했으며, 사물놀이, 남원시립소년소녀합창단, 판소리 등 축하기념공연이 펼쳐졌다.

도통중 행정복지센터 옆에 들어선 어린이청소년도서관에는 유아 및 어린이자료실, 청소년자료실, 일반자료실, 장난감 대여실, 강의실, 동아리실

등을 비롯해 다양한 부대시설이 갖춰져 있다. 장애인과 임신부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장애물이 없는 생활환경(BF) 인증을 받아 설계했다.

또한 유아 및 어린이, 청소년, 일반 및 부모를 위한 1만5,000여권의 도서와 연령별 500여개의 장난감도 있으며, 이용자와 학부모들의 선호 및 요청에 따라 도서와 장난감을 추가로 구입할 예정이다.

특히, 남원시는 이곳을 학습과 체험, 놀이, 여가활동을 할 수 있는 멀티공간으로 제공해 어린이들이 창의적인 사고와 꿈과 희망을 키울 수 있도록 한다는 복안이며, 여름방학을 맞아 다양한 주간 및 월간 독서 프로그램도 제공할 예정이다.

운영시간은 매주 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오전 10시부터 오후 7시까지이다. 월요일과 공휴일은 휴무이며 이용문의는 (063-620-5291~5293)로 하면 된다.

개관식에서 이환주 시장은 "어린이와 청소년의 꿈과 희망을 맘껏 펼칠 수 있는 공간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며, 남원을 대표하는 문화공간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당부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남원시는 25일 어린이청소년도서관을 개관했다.

임실, 장애인 전동보장구 급속충전기 8개소 설치

1시간에 70% 충전 가능

임실군은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 및 건강한 사회참여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장애인전동보장구 급속충전기'를 관공서 등 주요 공공시설 8개소에 설치했다.

25일 군에 따르면 이번에 설치된 전동보장구 충전기는 보행에 장애가 있

는 분들과 거동불편 어르신들이 주로 사용하는 전동휠체어나 전동스쿠터 등에 안심맞춤이다.

충전기는 보행보조기구의 배터리를 동시에 2대 충전이 가능하고, 1시간에 70% 가량 충전이 가능하다.

이번에 설치된 장소는 유동인구가 많고, 보장구 사용자의 동선을 고려하여 임실군청, 임실군민체육회관, 정음면사무소, 운암면사무소, 성수면사무

소, 오수면사무소, 관촌면사무소, 강진면사무소 등 8곳이다.

심민 임실군수는 "이번 급속충전기 보급을 통해 외출 시 배터리방전에 따른 심리적 불안감 해소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조성을 통해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을 실현하고 장애인 권리 보장에 앞장 서겠다"고 말했다. /임실=진홍영 기자

지리산국립공원, 다양한 외래식물 관리 나서

지리산국립공원전북사무소(소집현 소장, 이하 사무소)는 생태계교란식물 서식면적 감소를 위해 다양한 주민참여형 외래식물 관리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첫번째 외래식물 관리활동으로 사무소는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관리단을 모집하고 있으며, 가입자를 대상으로 제거 대상종, 분포지역, 제거방법 등을 교육하고 있다.

또한 관리단이 생태계교란식물을 제거해 가져오면 스탬프 인증 후 목표량 달성 시 배낭 등의 상품으로 교환해 주는 이벤트를 진행 중이며, 참여를 희망하는 경우 7월 30일까지 063-630-8932로 연락하면 된다(선착순 100명) 두번째는 생물학적 방제로 생태계교란식물 물리적 제거 후 제거지역에서 활착이 용이한 자생종을 식재해 역제되도록 하는 것을 의미한다.

세번째 외래식물 집중제거 행사운영으로 사무소는 외래식물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을 높이기 위해, 지난 23일 바래봉에서 국립공원·남원시·지역주민과 합동으로 외래식물을 집중 제거하며 캠페인을 시행했다.

김창순 자원보전과장은 외래식물 관리 사업에 대한 지역주민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순창군이 공무원을 대상으로 '우리 함께 다 웃어요' 라는 주제로 연 웃음 콘테스트 수상자를 발표했다.

순창군 공무원 '우리 함께 다 웃어요'

웃음 콘테스트 6명 수상자 선발

순창군이 공무원을 대상으로 '우리 함께 다 웃어요' 라는 주제로 연 웃음 콘테스트 수상자를 발표했다.

지난 24일 최종 심사를 거쳐 6명의 수상자를 발표한 가운데 유등면 김유나 주무관이 대상을 영예를 안았다. 최우수상에는 행정과 임종록, 우수상은 미생물산업사업소 레이모로, 장려상에는 기획예산실 정승태, 재무과 황가영, 건강장수사업소 이지영 주무관 등 총 6명의 수상자를 선발했다.

웃음 콘테스트는 공무원들이 갖는 따뜻한 이미지를 탈피하고 군민들에게 밝게 웃는 모습으로 민원인을 친절하게 응대하자는 의미로 순창군이 기획했다.

지난 6월부터 전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접수해 지난달 27일 예심을 거쳐 본선진출자 20명을 선발했다. 예심과 본선 모두 외부 민간위원을 참여시켜 심사위원단을 구성해 심의의 공정성을 높였으며, 지난 24일 군청 3층 회의실에서

본선 진출자 중 최종 수상자 6명을 선정했다.

군은 이번에 선정된 수상자 6명에 대해서는 순창을 대표하는 웃음 전도사로서 활동을 하게 된다고 밝혔다.

이번에 대상을 받은 김유나씨는 "공무원 대상으로 웃음 콘테스트를 한다는 소식을 듣고 처음에 망설였다 아무런 기대없이 참여했는데, 대상이라는 너무나 큰 상을 받게 되어 매우 기쁘다"면서 "앞으로 순창군의 웃음 전도사가 되어 군민 모두가 행복한 순창을 만들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소감을 밝혔다.

황숙주 군수는 "공무원은 민원인을 대할 때 웃음으로 맞이해야 민원인과의 소통이 원활히 되고, 또한 자신감을 갖게 하여 결국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면서 이번 웃음 전도사의 역할에 큰 기대감을 보였다.

/순창=이양원 기자

순창군, 개인정보보호 및 정보통신보안 교육

순창군이 지난 25일 군청 영상회의실에서 개인정보취급자 및 보안담당자 100여명을 대상으로 '개인정보보호 및 정보통신보안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각종 사이버 공격과 업무담당자의 부주의로 인한 사이버 침해에 대한 경각심을 다시 한 번 일깨우고, 지난 5일자 인사변동에 따른 개인정보취급자 변경으로 개인정보보호

의식을 강화해 각종 유·노출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마련됐다.

특히 개인정보보호법의 주요내용과 안전성 확보 조치 사항, 개인정보침해 사고 유형과 실제 업무현장에서 흔히 발생할 수 있는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한 다양한 피해사례와 정보통신보안 조치사항을 설명함으로써 교육에 참석한 직원들의 이해를 한층 높였다. /순창=이양원 기자

지역 매아리

남원시, 방치공 찾기 운동 전개

남원시가 생명수인 청정 지하수를 보존하기 위해 방치공 찾기 운동을 전개하는 등 본격 나선다고 밝혔다.

남원시는 지하수 오염의 주범인 방치 및 은닉된 지하수공을 찾아 원상 복구해 청정지하수 환경을 조성한다는 방침이며, 지하수 방치공은 개발 및 이용 과정에서 수질불량이나 수량 부족 등의 이유로 방치된 관정을 의미한다.

유지관리가 되지 않은 지하수 방치공은 관정 내에 설치된 관이 부식돼 지하수를 오염시키거나 관정 입구가 지표에 노출되어 오염된 지표수와 농약 등이 유입돼 지하수를 직접 오염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으며, 발견된 방치공에 대한 원상복구사업을 병행 추진할 예정이다.

특히, 남원시에서는 지하수 오염을 예방하기 위해 지하수를 개발하고 이용할 경우 사용 용도에 따라 2년 또는 3년에 1회씩 지하수 수질검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으며, 방치공 신고는 읍면동이나 환경과(063-620-6916)로 하면 된다.

왕길성 환경과장은 시민들에게 "지하수는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공공자원으로 후대에 맑고 풍부한 수자원을 물려준다는 마음으로 지하수 방치공 찾기에 적극적인 동참"을 당부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남원, 아름다운 도시경관 만들기 추진

남원시가 조화로운 경관, 기억되는 도시 만들기를 위한 도시경관 만들기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고, 25일에 경관관련 전문가와 함께 경관계획 수립용역 착수 보고회를 가졌다.

이번 용역은 시가지 전역에 대해 지역성을 감안하고 경관관리와 기본원칙을 정하고 시가 보유하고 있는 자연, 역사, 문화 등 경관자원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보존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수립하는 중·장기계획이다.

남원시는 그동안 간판개선사업 추진 등 도심미관 개선에 힘써왔으나 체계적인 도시디자인 마스터플랜이 마련되지 못해, 이번 용역을 통해 종합적인 도시경관개선 계획을 수립하고 본격적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학계와 경관관련 전문가들로 구성된 경관위원회를 운영하고, 지역 정체성과 품격을 높이는 공공디자인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수립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제정 ▲경관·공공디자인 개선사업 등을 체계적 관리해 정책 효율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이환주 시장은 "도시디자인은 도시의 경쟁력이며 세계적인 추세로 도시전반에 대해 새로운 디자인이 필요한 때라며, 내실있는 경관계획을 수립해 기억되는 도시를 재창조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 밝혔다. /남원=김기두 기자

대한민국 치즈의 수도
임실치즈

벨기에 출신 지정된 신부(Didier l'Serstevens)가 국내 최초로 개발 보급한 한국 치즈산업의 원조 임실치즈. 신선한 원유와 40년 이상의 가공기술력으로 만든 임실치즈는 맛이 고소하고 담백하여 어린이, 노약자의 영양간식으로 매우 좋습니다.